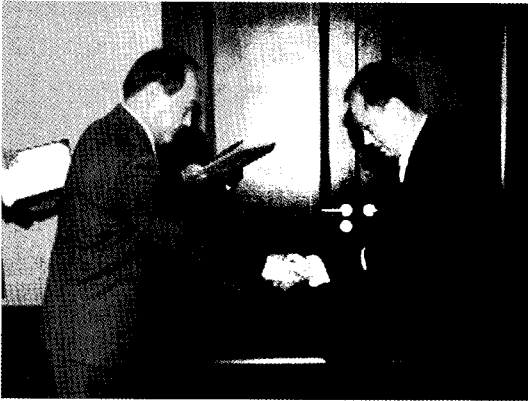




동양시멘트(주)

2008년 정기승진 사령장 교부식 실시



지난 3월 19일 동양메이저·시멘트 본사 15층 회의실에서는 2008년 정기승진자 사령장 교부식이 열렸다. 이번 정기승진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조직의 단합과 금년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200여명의 인사발령 대상자 가운데 20여명이 참석해 사령장을 받았다. 이날 동양시멘트는 장광수 부장, 남용한 부장을 비롯한 8명이, 동양메이저는 염영철 부장, 원영조 부장 등 12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승진자들은 “힘든 경영 여건을 극복하고 회사와의 일체감을 더욱 공고히 하여 변화 선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척공장, 낭비제로운동 실천 결의대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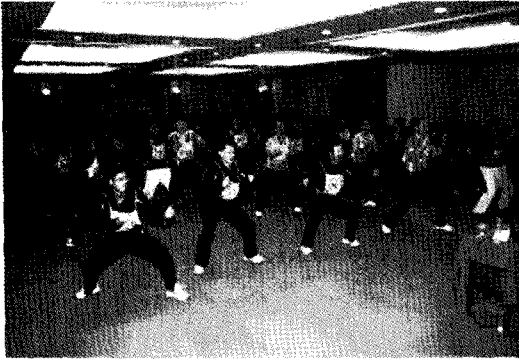
삼척공장은 지난 3월 18일 삼척공장 기술훈련원 대강당에서 사무기술직 전원과 교대 반장이 참석한 가운데 낭비제로운동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낭비제로운동은 대외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영여건 속에서 공장의 비효율적인 업무 및 불필



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원가절감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결의대회는 종업원을 대표하여 생산1팀장인 박수정 부장이 낭비제거를 위한 실천 결의문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삼척공장장 최경덕 전무는 낭비제로운동에 대한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전체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대회는 혁신관련 영상물 상영으로 마무리 되었다. 낭비제로운동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생활 속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직급별 핵심요원으로 TF팀을 별도 구성하여 공장의 시스템 운영상의 낭비 등 근본적인 낭비요소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관리자 의식혁신 워크숍 진행

지난 3월 7일부터 8일,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차에 걸쳐 관리자 의식혁신 워크숍을 시행하였다. 삼척공장 과장 이상 5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2008년 공장 목표달성을 위한 관리자 의식변화, 혁신 및 내부역량 강화는 물론 그룹의 신비전가치체계인 일등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더불어 팀빌딩 시간을 통해 팀별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창의적인 사고와 협동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과장이상 관리자들의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소형 건설기계(지게차) 교육 시행



삼척공장은 지난 4월 22일부터 23일, 4월 28일부터 29일 2차에 걸쳐 소형 건설기계(지게차) 교육을 시행하였다. 생산직 사원 5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교육에서는 동해직업전문학교 전문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건설기계 기관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일반과 같은 이론적인 학습과 함께 장비운전을 직접 현장에서 실습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교육 종료 후에는 자격증을 발급하였다.

삼척공장, 역대 최고 생산실적 달성

삼척공장은 지난 5월 한달 동안, 크링커 859,005톤을 생산하여, 월별 최고 생산기록을 경신하였다.

이에 삼척공장 공장장 최경덕 전무는 지속적인 기록 경신과 회사 목표달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자는 취지에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했다.

해양 레일바이크 및 해상 곤돌라 설치사업 투자협약 체결식 맺어

동양시멘트는 삼척시와 신관광자원 조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해양 레일바이크 사업과 용화에서 장호간 해상 곤돌라 설치사업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지난 3월 12일 노영인 동양시멘트 대표이사를 비롯한 삼척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척시청 상황실에서 투자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사업 체결은 삼척시와 동양시멘트가 공동으로 추진하였던 해양관광개발 마스터플랜을 추진할 결과 사업 수익성이 뛰어난 첫 사업으로 삼척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협약식은 관광개발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경과보고와 삼척시장의 인사, 동양시멘트 대표이사의 인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해양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부지 선정 및 보상협약이 이뤄지며 군 시설물 이전과 주민현안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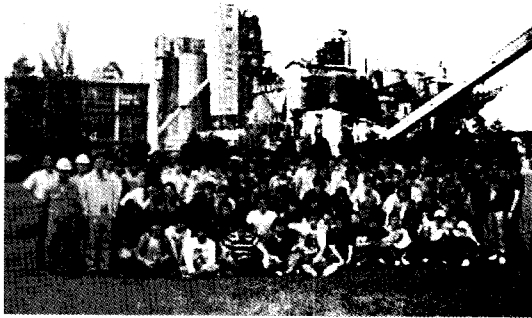
쌍용양회공업(주)

가메이 타다하루 회장, 생산공장 방문

쌍용양회 가메이 타다하루 회장이 5월 7일과 8일 양일간 취임 후 처음으로 동해와 영월공장을 방문했다. 홍사승 사장과 함께 한 이번 방문에서 가메이 회장은 동해와 영월의 생산시설을 직접 돌아보고 현장 종업원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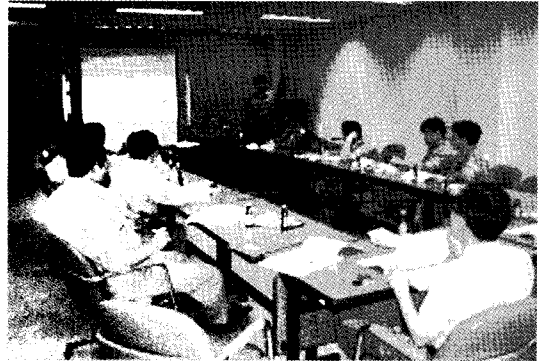
토목 건축 관련 전공 대학생들,
생산공장 방문



동해공장과 영월공장은 5월 16일과 22일 각각 한양대 건설환경시스템공학부와 서울산업대 토목공학과 학생들의 방문을 받았다. 동해와 영월공장을 방문한 대학생들은 쌍용양회 홍보영화와 시멘트 제조 공정을 담고 있는 시멘트 스토리를 관람하고, 직접 광산부터 출하과정까지 시멘트 생산공정을 둘러봤다. 한편, 5월 9일 동해시에 위치한 동호초등학교 학생 60명도 동해공장을 방문해 제조공정을 돌아봤다.

영월공장, 2008년도 대보수
평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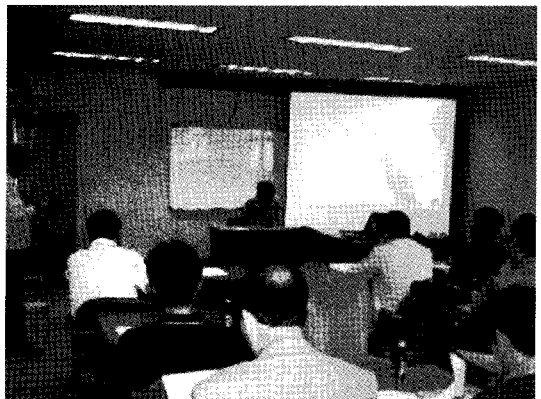
영월공장은 5월 16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동계



대보수와 정전작업 등을 되돌아보는 2008 대보수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에는 안광원 공장장을 비롯해 반장 이상 관리자 전원이 참석하여 대보수와 정전작업 중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각각 점검해 향후 작업에 반영하고, 동시에 품질과 설비효율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순환자원 운송업체 대상
환경안전교육 실시

환경자원사업본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영월과 동해, 그리고 본사에서 모두 세차례에 걸쳐 동해와 영월공장을 출입하는 순환자원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교육을 실시했다. 87개 업체에서 104명이 참석한 환경안전교육은 최근 순환자원 사용 동향을 비롯해 수집 운반과정 중 발생한 실제 사례를



업계 동정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순환자원 반입 과정 중 관리 및 지켜야 할 안전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환경자원사업본부는 앞으로도 환경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영월공장 신형 청소차 도입



영월공장은 지역과 함께 하는 공장과 깨끗한 지역 만들기 일환으로 최신행진공청소차를 도입해, 5월의 첫 환경정화활동부터 공장 구내 및 공장 인근 환경정비에 활용하고 있다.

동해공장,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 동참

동해공장은 5월 14일 동해시청에서 강원도민일보와 춘천 MBC가 주최한 2008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 모금행사에 참여했다. 사랑의 점심나누기 캠페인은 강원도내 어려운 가정과 아동들에게 원아교육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아프리카 잠비아에 희망의 보건소를 짓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혁신추진팀 신설

5월 22일 전사적인 혁신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혁신추진팀을 신설했다. 기획본부 산하에 신설되는 혁신추진팀은 전사적

인 혁신운동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향후 혁신운동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 사내 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인천사업소, 월간 최대출하기록 갱신

쌍용양회 레미콘경인서부지역본부 인천사업소가 한달만에 또다시 월간 최대출하기록을 갱신했다. 인천사업소는 4월 한달 동안 48,693m³를 출하해 3월에 기록한 46,398m³를 2,295m³ 초과 달성했다.

주민합동 대청소 실시



동해공장은 5월 22일 종업원과 삼화동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화동 주변부터 무릉계곡까지 모두 4km에 걸쳐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KS 인증 연장 심사 통과

동해공장이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열린 시멘트와 레미콘 부문 KS 인증 연장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표준협회와 건자재시험연구원은 동해공장의 시멘트와 레미콘 부문을 대상으로 표준 일반화,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제조설비 관리, 검사시험 설비 등을 검사하고 KS 인증 연장을 결정했다.

생산공장의 엔지니어 대상 기술세미나 실시

생산공장의 엔지니어와 생산반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세미나를 5월 23일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동해공장 종합기술훈련원에서 진행했다. 현장의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생산부문의 내화물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전기집진기, 접지 시스템의 이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일시멘트(주)

세계 최고 초유동성 콘크리트 개발

한일시멘트가 세계 최초로 슬럼프 플로우 850mm 이상의 높은 유동성을 발휘하는 초유동성 콘크리트 개발에 성공했다. 대우건설과 공동으로 개발한 초유동성 콘크리트는 시멘트의 입자배열을 최적화함으로써 굵은 골재 최대치수 20mm를 사용하면서도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재료분리 없이 슬럼프 플로우 850mm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신개념의 콘크리트이다. 특히 초유동성 콘크



리트는 다량의 시멘트를 사용함으로써 주로 고강도 범위에만 국한되었던 기존 고유동콘크리트와는 달리 일반강도(30MPa 이상) 범위에서부터 고강도(80MPa 이상) 범위까지 선택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높은 유동성에 따른 충전성 향상으로 철근이 과밀 배근된 부재이거나 형상이 복잡하여 다짐하기 어려운 부재, 그리고 Top Down 공법 등으로 시공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 다짐불량에 따른 구조물의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수명이 긴 콘크리트 구조물 건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17일 한일시멘트와 대우건설은 초유동성 콘크리트 현장시험 시공을 완료한 바 있다.

단양공장, 충청북도 품질경영상 수상



단양공장이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08년 충청북도 품질경영상'을 수상했다. 단양공장은 30여개에 이르는 사내 품질분임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해마다 전사적으로 품질혁신 경진대회를 열어 품질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설비고장률, 제품불량률, 근로자 재해율 제로 운동인 TPM(전사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보전) 활동을 시작한지 3년만에 얻은 쾌거다. 원인상 공장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단양공장은 생산 혁신활동을 통해 생산업무의 혼선을 줄이면서 생

산효율을 증진시키고 설비의 체질개선 및 효율화를 구축하는 등 최적의 기업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녹색경영 활동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효율적인 품질경영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품질경영상은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 풍토를 쇄신해 올바른 기업문화 창달을 위해 마련됐다. 시상은 지난 6월 12일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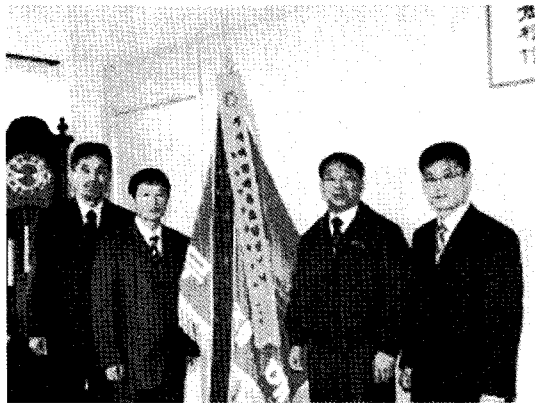
고객중심의 테크니컬센터 개소



한일시멘트가 R&D와 마케팅 개념을 접목시킨 신개념연구소 '테크니컬센터'를 지난 6월 17일 개소했다. 시멘트업계 최초로 문을 연 테크니컬센터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탈피,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 기존 제품의 개선과 신제품 개발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고객초청교육 및 기술세미나 등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이러한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장과 고객을 중심으로 한 제품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아카데미'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테크니컬센터'가 시멘트, 모르타르 등 기초건자재 제품의 전문 아카데미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테크니컬센터'의 캐치프레이즈는 '고객과 함께'이며, 이는 '테크니컬센터'의 약자인 'T/C'에서 'Together Customer'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인천공장 무재해 10배수 달성



4265일, 한일시멘트 인천공장이 '무재해 10배수'를 달성했다. 인천공장은 지난 1995년 11월 11일부터 2007년 8월 17일까지 11년 9개월 동안 단 한건의 인명사고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무재해 10배수를 달성했다. 인천공장은 지난 1997년 처음으로 무재해 1배수를 달성했다. 그후, 현재까지 무재해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으며, 무재해 10배수를 달성한 공장은 한일시멘트내에서 인천공장이 처음이다. 지난 11월 6일, 인천공장은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무재해 10배수 기록 인증패'를 수상했다.



현대시멘트(주)

정기 주주총회 개최

3월 21일 제38기 정기 주주총회가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몽선 회장이 이사, 성기성 교수가 사외이사로 중임되었고, 김호일 부회장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이상열 감사도

업계동정



중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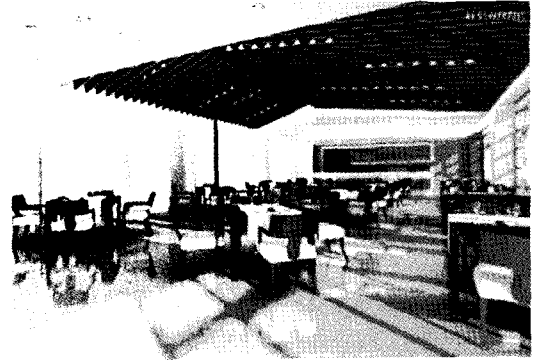
본사 임직원 북한산 등반 단합대회 실시



지난 4월 12일 본사 임직원 70여명이 북한산 등반을 실시했다. 임·직원간 화합증진 도모와 현대시멘트가 일류기업, 최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날 참석한 임·직원이 정상에 올라 한마음, 한뜻을 같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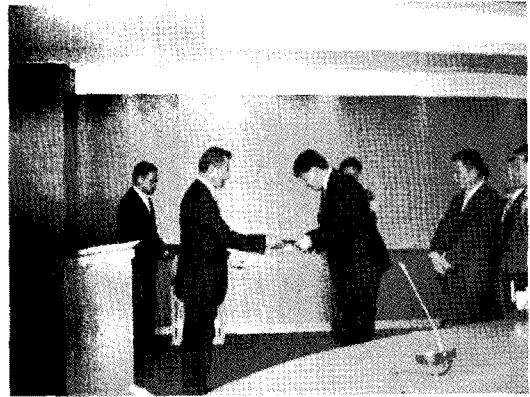
레저사업본부 오스타단양CC 클럽하우스 5월 증축 완공

올해 10월, 명문 퍼블릭 골프장으로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증축중인 오스타단양CC 클럽하우스가 5월 17일 완공되었다. 증축된 클럽하우스는 홀별로



22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단체홀 4개를 비롯, 쾌적하고 넉넉한 전자식 도어록이 설치된 약 280개의 로커와 골프장이 보이는 사우나 등 최고의 품격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다.

임원·부서장 업무평가 시상식 실시



2007년도 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임원·부서장 우수상 시상식이 개최되었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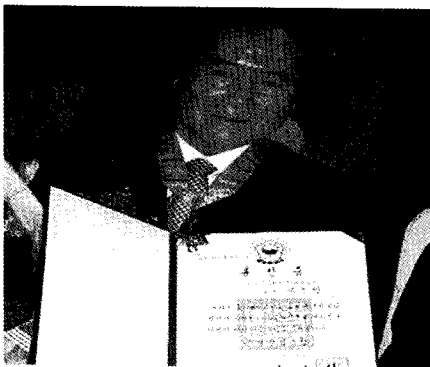
- 최우수상 : 본사 신규사업 오성모 이사
여주공장 신현봉 이사
본사 영업부 서홍록 부장
- 우수상 : 단양공장 이성만 이사(공장장)
대전공장 조성환 부장
정보시스템실 양길우 부장



아세아시멘트(주)

제천공장 이운연 반장 은탑산업훈장 수상

제천공장 생산팀 이운연 반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운연 반장은 4월 30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근로자의 날 시상식에서 노사상생협력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주는 '은탑산업훈장'을 수여받았다. 시상식에는 이운연 반장의 가족 및 아세아시멘트 직원들도 참석하여 수상을 축하하였다.



SUNGSHIN 성신양회(주)

2008년 흑자경영실현 Workshop 개최

지난 4월 12일 본사 대강당에서 당사 전임원 및 부·팀장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흑자경영실현 Workshop'이 개최되었다. 이번 Workshop은 1/4분기 경영실적 보고, 분임토의 및 발표, 외부강사 초청 강연, 결단의 시간 등 흑자경영 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히 '결



단의 시간'을 통해 임직원들의 흑자경영 실현을 위한 의지와 각오를 엿볼 수 있었다. 이번 Workshop을 통하여 김재실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모든 임직원들이 2008년 경영방침인 매출 극대화, 원가 절감, 신수익원 창출로 흑자경영 실현이 반드시 달성되도록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 재단에 시멘트 후원



지난 3월 21일 당사는 어린이재단(회장 김석산)에 시멘트 만대(400톤)를 지원하였다. 어린이재단은 북한 빈곤 아동들을 돕기 위해 평양시에 '어린이 지원봉사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당사는 북한 빈곤 아동들을 도우려는 어린이재단의 취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시멘트를 지원하였다. 향후 '어린이 지원봉사센터'는 센터 완공 후, 이곳에서 나오는 수익금

업계 동정

으로 식량 지원, 영유아 보육원 지원, 인민병원 시설 지원 등의 활동에 사용하게 된다.

실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일반주주 100여명이 참석하여 정관 변경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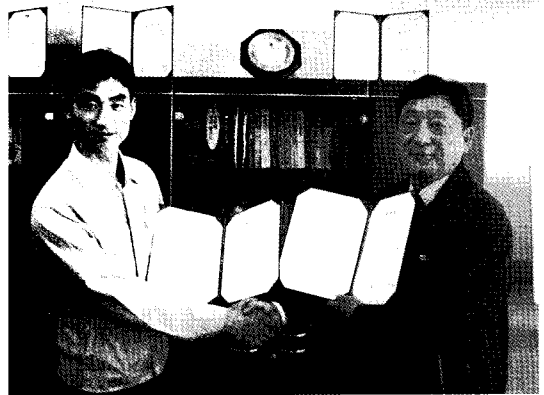
2008년 임금동결 선언



지난 3월 1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김재실 대표이사과 오시백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임금동결을 선언하였다. 이날 노사는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08년 임금동결에 합의하였다.



노사간 항구적 노사평화 선언



고려시멘트(주) 대표이사 양원돈과 노동조합 위원장 박선일은 5월 26일 회사 임원 및 노동조합 집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08년 임금협약 조인식에서 노사평화를 선언하였다. 특히, 노조측은 최근 고유가와 경제불안 등 국내외 경영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생존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인식하고 2008년도 임금교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회사에 위임함은 물론 항구적인 무분규, 무교섭을 통한 노사평화를 선언하였다. 회사측은 “노사화합만이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며, 자발적으로 회사를 위해 솔선수범해 준 노동조합과 전임직원에게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생산성과 비례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려시멘트 노사는 2007년 임단협 교섭 결렬로 인하여 10여일간 파업과 휴업을

제42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지난 3월 21일 당사는 본사 대강당에서 제4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주주총회는 김재



거듭한 사업장으로 이번 노사평화 선언을 계기로 광주, 전남 노사관계는 큰 변화가 일 것으로 기대된다.



'라파즈 안전의 달 (Lafarge Safety Month)' 행사 진행

라파즈 그룹은 2008년 6월을 라파즈 안전의 달(Lafarge Safety Month)로 지정하였고, 전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전행사를 6월 한달 동안 펼쳤다. 안전의 달 행사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참여속에 안전장애요소를 발굴·제거하며, 안전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이 우리의 핵심 가치임을 알리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라파즈한라시멘트와 한국라파즈 석고보드 양사가 공동으로 TFT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왔다. 필요하다면 공장의 가동을 멈추고서라도 모든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정도로 이번 행사에 경영진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안전은 누구에게나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임직원과 가족, 협력업체 직원, 고객과 지역사회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특히 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로드맵과 관련된 세가지 주제-고소작업 안전표준(WAH), 개인



보호구안전표준(PPE), 이동장비안전(MEA)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안전의 달 행사 기간동안 서울사무소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안전, 비상대피 훈련, 방어 안전운전 교육이 있었고, 옥계공장에서는 Safety Day, 안전 사생대회, 휠로더 경진대회 등이 열렸으며, 포항공장, 광양공장, 유통기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옥계공장 항만하역업 무재해 4배 달성



라파즈한라시멘트는 3월 28일 옥계 항만공장 교육장에서 항만하역업 무재해 4배 달성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강원지도원장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12월 21일부터 2007년 12월 25일까지 1,100일 동안 달성한 무재해 인증서를 전달 받았다. 이날 안전유공자로 선정된 물류관리팀 최도순 사수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다. 항만하역업 무재해 달성은 항만하역업에 해당하는 당사 직원뿐 아니라 항운노조를 포함하여 달성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강릉시와 1사 1문화재 지킴이 협약식 체결

라파즈한라시멘트는 4월 30일 강릉 향교에서 강



릉시가 주최하는 '1사 1문화재 지키미'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라파즈한라시멘트는 강릉시와 함께 강릉향교, 문묘대성전 등 관내 주요 문화재 보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환경정화활동을 벌이는 역할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2008 환경보고서 발행

라파즈한라시멘트의 환경보고서인 '환경과 이웃' 2008년판이 발간되어,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발송되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발행되는 환경보



고서는 환경에 대한 회사의 약속은 물론이고, 공익 환경 활동부터 지역사회 환경활동까지 다양한 노력을 담고 있다. 환경보고서는 지난 2002년 제1호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 7호가 발간되었다.

식목일 '나무 나눠주기 행사' 협찬

라파즈한라시멘트가 협찬한 가운데 3월 28일 오전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동부지방산림청이 주관한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서 감나무, 매실나무, 포도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등 1만 7,800그루가 무상으로 분양됐다. 이날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묘목을 받기 위해 나온 강릉 시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시멘트(주)

납세자의 날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2008년 3월 3일 제42회 납세자의 날에 당사 천병주 대표이사는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재정에 이바지한 공로로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